

# 轉換期를 맞은 世界精油産業

이 資料는 하와이대부설 東西文化센터의 Fereidun Fersharaki 박사와 David Isaak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 「OPEC와 世界精油産業의 危機」의 結論部分을 번역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4월말경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編輯者註>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세계 精油産業은 현재 큰 변화를 겪고 있다. 70년대에 가격폭등이라는 大變革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精油産業은 앞으로 10년간 「조용한 變革」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조용한 變革」은 과거 70년대의 소란스러웠던 變革과 같이 세계 石油産業의 장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精油業界에 있어서 80년대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혼란이라 함은 精製施設의 과잉, 보조금지원, 국내가격의 규제 및 政府의 간여로부터 연유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품공급과 수요를 균형화시키는데 필요한 精油産業의 합리화가 지체되고 있다.

수요가 급성장하여 精油産業의 대폭적인 감축을 모면하려고 기대하는 것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세계 精油産業은 추가시설의 감축이나 폐기 또는 일부 회사의 파산이 예상되고 있다.

美國의 石油産業이 구조개편을 단행한 속도를 보면, 精油産業이 정부의 방임주의적인 정책하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과잉정제시설의 개편에 착수할 수 있는 지 알 수 있다. 石油市場의 장래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石油産業과 政府가 과잉정제 시설을 감축하기 위해 自由市場制度로 도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다.

과잉정제시설에 대한 집착은 追加需要를 창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고통만을 연장하게 될 것이다. 高度化시설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확고한 原油導入先이나 市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精油會社는 궁극적으로 시설감축을 단행해야 될 것이다.

물론 시설감축이 완전히 조직적이거나 지리적으로 合理的인 것은 못된다 하더라도 과잉시설은 조만간 감축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낮은 稼動率을 무한정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石油市場이 균형을 이룬 후에야 건전하고 탄력성 있는 精油産業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87년경이 精油産業의 고비

OPEC產油國들이 제품수출에 참여한 것은 분명히 問題의 원인은 아니지만, 시설과잉인 기존의 세계 精油産業에 추가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OPEC의 精油部門에 대한 贊反과 관련하여 問題의 핵심

은 그들이 이 사업에 왜 참여하기로 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참여해서 수출정제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이다.

石油市場에서의 영향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石油生産에 대한 OPEC수출국 특히 페르샤만 國家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今世紀末에 가서는 페르샤만수출국의 위치가 상당히 강화되고 세계 석유거래를 지배하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

OPEC회원국들이 수출정제와 침체된 세계 精油産業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제품생산에 관한 중요한 時期는 87년경이 될 것 같다. OPEC와 非OPEC의 모든 신규 정유공장들이 87년까지 가동에 들어간다. 정제시설 폐기율이 낮아지고 石油需要가 급격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86~88년 期間은 세계 정유산업의 최대 試鍊期가 될 것이다. 물론 과잉시설의 폐기율이 높아지면 도움이 되겠지만, 石油需要는 그때까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精油産業은 수년후에 적자재현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나라들은 카리브海와 싱가포르와 같은 수출용 정유센터가 될 것이며, 만일 과잉시설이 감축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국가의 精油業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둘째, 87년 이후에는 石油産業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의 개선은 石油需要의 증가, 정제시설의 불가피한 감축 및 국내 수요증가로 인한 OPEC의 수출감소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0년대초나 중반까지는 OPEC나 非OPEC을 막론하고 신규정유공장건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PEC회원국들은 신규정유공장 건설을 고려하기에 앞서 세계 石油市場의 변화를 신중히 주시해 보려고 할 것이다.

### 精油工場의 폐쇄

세계, 어느 정유공장이 폐쇄되고 어느 정유공장이 존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공장의 經濟성과 시설에 달려 있다. 또 다른 중요검토 요

인은 순수한 「生存力」(Staying Power)이다. 시장의 압력을 견딜수 있는 공장들은 다른 공장을 불가피하게 몰아내고 위기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 후 이들 정유공장들은 균형과 수익이 좋은 稼働期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生存력을 갖고 있는 정유회사로는 OPEC의 정유회사들과 정제업을 계속하는 메이저들이 될 것이다. OPEC 政府들, 특히 GCC國들은 利益配當에 의존하지도 않고 또한 주주들로부터 株價유지의 압력도 받지않고 있다. 이들 國家는 정제시장에 장기적으로 잔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익을 내게 될 것이다.

비록 OPEC國들이 세계 정유산업의 위기를 분명히 예견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OPEC국들은 정제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나친 投資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國家는 정제부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갖고 있다.

大石油會社の 경우,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決斷은 회사의 전략적인 決斷이다. Gulf와 같은 일부 메이저들은 국제적인 정제부문에서 철수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 석유거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제부문을 계속 유지기로 한 일부 메이저들은 장래의 好況을 기대하고 현재의 低收益 또는 赤字를 감내하고 있다. 이들 메이저들은 대부분 정제부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고 있다.

Gulf의 例를 따르려고 하는 일부 메이저들은 많은 石油會社들이 정제부문에서 철수하고 석유거래에 전력을 다할 경우 去來收益도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獨立系 석유회사들이 정제부문에 많이 머물러 있으나, 일부는 80년대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고정시장을 갖고 있는 석유회사들은 살아남을 것이 분명하다.

### 美國, 유럽 및 아시아의 전망

지리적으로 볼 때, 美國은 앞으로 남아있는 20세기 기간중에 가장 안전성이 높은 경쟁국이 될 것이다. 美國의 정유산업은 규모가 작고 시설이 高度化되어 있으며, 또한 이미 단행된 시설의 폐쇄로 인해 高度化比率는 더욱 높아졌다.

美國에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또 경제적으로 경

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저렴한 금융비로 건설되고 싼 燃料로 가동되고 있는 中東產油國의 정유공장들도 美國에서는 거의 경쟁이 안될 것이다.

美國의 西海岸地域은 80년대말까지 정제시설의 과잉상태가 계속되어 제품가격은 美國의 다른 지역보다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유럽은 가장 경쟁이 심하고 혼란한 시장이 될 것이다. 세계적인 基準으로 보면 정제시설이 비교적 高度化되어 있으나, 政策調整의 빈곤, 가격규제 및 政府와 조합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하여 유럽은 자체의 정유제품, 소련의 수출제품 및 페르샤만의 수출제품간에 치열한 격전장이 될 것 같다.

아시아에서는 市場開發이 가장 흥미를 끌고 있다. 아시아는 석유수요의 증가전망이 매우 높고, 국내정제시설은 단순하기 때문에 수요패턴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지역가운데 하나이다. 燃料油 가격은 美國이나 유럽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타제품가격은 높을 것이며, 일정 수준의 高度化施設을 갖춘 정유공장은 상당한 마진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용 정유센터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原油와 製品價格의 상호작용

製品貿易이 확대됨에 따라 原油와 製品價格의 상호작용이 강화될 것이다. 石油貿易業者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이 상호작용의 단순한 개념은 OPEC의 제품수출증가와 함께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게 될 것이다.

原油수출이 새로운 제품수출의 패턴과 완전히 균형을 맞추어 삭감되지 않는 한, 제품수출의 증가는 제품가격에 인하압력을 주게 되고 이는 다시 原油가격을 약화시키며, 이렇게 될 경우 제품가격에 다시 인하압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다른 研究報告書에서 원유와 제품시장간의 상호작용의 범위를 규명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이보고서는 석유제품시장이 原油시장보다 OPEC의 제품수출에 더욱 민감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OPEC 제품수출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OPEC가 어느 시장의 점유율을 잠식하느냐의 검토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만약 OPEC가 다른 제품공급원을 사실상 代替하지 않고, 단지 세계제품공

급량만을 증가시키면서 原油수출량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장기적인 잠재영향은 제품수출량이 하루 100만배럴 증가할 때 제품가격인하 요인은 배럴당 4.90달러가 될 것이다. 이는 제품가격의 인하로 原油가격이 배럴당 4.90달러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나리오는 OPEC의 입장에서 볼 때, 最惡의 代案이지만, 수출용 정제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제품수출을 증가시키므로써 原油의 수출가격을 인하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OPEC의 두번째 選擇은 수출용정제센터의 일부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OPEC가 제품수출의 증가량 만큼 原油의 수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경우 총수출물량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케 된다. 이러한 政策의 영향은 하루 100만배럴의 제품을 수출할 경우 제품가격은 배럴당 20센트, 원유가격은 40센트 상승할 것이다.

OPEC의 利益은 一石三鳥가 된다.

첫째, 제품시장의 부분적인 統制로 인해 OPEC는 수직적인 業務의 統合을 통해 더 많은 독점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원유가격의 強勢는 결국 제품가격의 상승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제품의 평균실제가격과 原油의 현물시장 가격간의 격차는 石油의 수출구성비(Export Mix)를 原油에서 제품 위주로 전환하여 얻어지는 OPEC의 한계수익(Marginal Revenue)이 될 것이다.

물론 이들 收益은 제품의 정제비, 운송비용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제품수출 증가는 原油價하락 초래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OPEC의 제품수출이 일부는 다른 供給源을 대체하고 또 다른 일부는 제품공급량만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OPEC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OPEC의 제품생산량이 현재 예상되는 만큼 증가하게 된다면, 原油의 실질가격은 86~87년

까지 계속 하락하여 배럴당 약 25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OPEC가 만일 제품수출에 대하여 보다 보수적인 정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제품가격의 하락을 상승시킬 수 있을 정도로 원유수출량을 삭감한다면, 84~87년 기간에 예상되는 가격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OPEC가 적극적인 제품수출정책을 취한다면, 이는 원유와 제품시장에서 심각한 가격하락을 초래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렇게 될 경우, OPEC의 純收入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며, 모든 OPEC회원국들은 일부 收入을 상실할 것이다. 그러나 원유생산량의 감축은 다시 가격 하락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일 OPEC가 稼動率을 점진적으로 높인다면, 石油價格이 강화 및 안정될 뿐만 아니라, 높은 收益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OPEC는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세계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方法과 스피드에 대한 OPEC의 戰略은 석유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과도기를 원활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協議. 제품수출조정정책 및 가격정책이 필요하다. OPEC는 아직 이러한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려는 意向도 能力도 없는 것 같다. 시장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OPEC와 非OPEC 제품수출국간에 정책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정책조정이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OPEC의 제품수출전략

OPEC는 아직 제품수출에 대한 戰略이 없다. 많은 제품수출국들과 잠재수출국들은 석유제품은 OPEC의 권한 밖이며, 各 個別國家의 특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國家는 가격조정 문제를 검토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OPEC의 제품수출국들은 대부분 자체의 제품수출전략을 아직 충분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OPEC의 제품수출국들이 필요에 따라 市場需要와 가격에 대처에 나갈 것으로, 즉 경쟁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OPEC의 제품수출국들은 또한 그들의 정유공장을 장기간 低稼動率상태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市場狀況이 좋지 않을 경우, 그들은 정유공장의 가동률을 수개월간은 낮출 것이나, 그 후에는 市場에 침투하여 시설이 高度화된 정유공장의 가동률을 높여 이를 이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좋은 高度化시설을 無用之物화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분명히 곤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수출전략에 관한 이러한 아주 막연한 예상이외에 구체적인 뚜렷한 자료는 거의 없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페르시아灣 市場構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兩國는 현재 주요 원유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요 제품수출국이 될 것이다. 수출제품의 대부분은 신규 정유공장이나 시설이 高度화된 정유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다.

83년 사우디 아라비아의 페트로민社는 주로 日本의 제품구매예상업체들과 접촉, 사우디제품의 구입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타진했다. 당시 대부분의 反應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그 反應자체에 너무 큰 비중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日本의 무역상들이 사우디의 제품수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뿐이며 실제 契約과는 아직 거리가 먼 것이다.

물론 문제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직 제품의 가격정책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현재 제품수출을 위해 제품의 가격결정방식을 작성중에 있으며, 84년중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격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우디 아라비아는 각 제품별로 政府公式價格을 고시할 것이다.
- 公式價格은 시장가격을 반영할 것이다.
- 제품은 FOB조건으로만 판매될 것이다.
- 長期契約(최하 12개월)에 의해서만 판매될 것이며, 더욱 기간이 긴 長期契約이 장려될 것이다.
- 地理的인 특혜는 없으나, 많은 量이 아시아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政府價格이 시장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게 될 것인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政府價格이 현물시장의 제품가격에 연동될 것인가, 제품생산원가(Net-

back)에 연동될 것인가, 아니면 第3 者の 가격에 연동될 것인가? 政府價格이 어느 價格에 연동될 경우 사우디 아라비아의 政府는 얼마나 자주 價格을 변동시킬 것인가? 아마도 사우디 아라비아의 가격결정공식은 指數와 연관된 허용범위(Tolerance Band)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가격변동폭이 허용한도(Tolerance Limit)를 넘을 때, 가격산출공식에 의거 새로운 가격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FOB가격 조건으로 제품판매를 주장하게 될 경우,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다.

첫째, 수송비는 美國, 日本, 유럽등 주요소비지 별로 다르다. 유럽의 시장가격을 반영한 FOB가격을 고시할 경우 사우디 아라비아의 제품가격은 아시아지역의 시장가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全世界의 제품시장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건 분명히 연결되어 있으나, 사우디의 제품은 각 지역의 인근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경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의 제품가격은 모두 동일하지 않다.

둘째, 제품의 FOB가격을 낮추게 되면 세계원유 가격에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주게 될 지도 모른다. 제품이 현행가격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곳에서는 CIF조건으로 대부분의 수출물량을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나올 것이다.

쿠웨이트의 KPC는 보다 실리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KPC의 판매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公式價格은 실제 시장가격과 일치시킨다.
- 대부분의 제품은 CIF조건으로 시장에서 경쟁가격으로 판매한다. 일부 FOB조건판매도 행한다.
- 長期契約을 꼭 요구하지 않는다. 제품은 변동하는 무역환경에 따라 Cargo, 短期 또는 長期契約으로 판매할 수 있다.

KPC의 전략은 미묘한 시장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제품수출이 석유시장에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政策과 貫行이 계속 검토된다. 그러나 기타 OPEC 및 非OPEC제품수출국들의 행위는 KPC의 自制 또는 計劃에 관계없이 석유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OPEC의 제품시장진출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제품수출에 대한

OPEC의 統合的이고 論理的인 政策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 OPEC内部構造에 대한 영향

일반적으로 제품수출의 증가는 OPEC 회원국들의 政策見解를 兩分시킬 것이다. 이는 OPEC의 價格에 대한 회원국들의 見解差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合意에 도달할 가능성을 더욱 낮게 만들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UAE는 기타 OPEC國家들과는 다른 經濟的 構造와 석유매장량을 갖고 있다. 이들 國家의 제품수출이 증가하면, 기타 회원국들과의 見解差는 한층 더 벌어질 것이다.

제품시장이 弱勢에 있고 제품수출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調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품수출의 증가는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UAE간에 극심한 경쟁을 초래할 것이다. 이들 3개국이 과거에 OPEC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利害相衡은 OPEC의 안정을 약화시킬 것이다.

## 價格과 市場의 영향력 증대

원유수출국들이 일단 제품판매에 참여하게 되면, 이들은 市場의 變化에 한층 더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과거 원유수출국들은 자신들은 단지 原資材輸出國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쟁이 심한 제품시장으로부터 超然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이들 國家는 消費國에 접근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제품시장에 깊이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규제품수출국들의 方向轉換은 틀림없이 自由市場機能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며, 또한 原油에 영향을 미치는 市場機能에 대한 그들의 민감성도 확실히 높게 될 것이다.

따라서 市場으로부터 그들의 原油販賣政策을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터득한 석유수출국들은 市場을 중시해야 한다는 또 다른 자극제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전반적인 政策은 더욱 市場指向的이 될 것이다.

대량의 제품유입과 함께 석유시장의 영향력 증가는 오랜 OPEC 내紛의 핵심인 原油價格差異(Crude differentials)라는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킬 지도 모른다. 원유공급의 不足이나 過剩時 아라비안 라이트와 北아프리카 原油간의 가격차는 경제적 論理와는 상관없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 79년 아라비안 라이트와 北아프리카 原油는 배럴당 무려 7~9 달러의 가격차를 보였다. 최근의 공급과잉 상태에서 가격차는 경제적 論理와는 상관없이 다시 좁혀졌다. 84년초 나이지리아 原油는 아라비안 라이트보다 배럴당 1달러 밖에 높지 않았다. 위 두 경우에 있어서 제품생산 원가(Netback)를 기준으로 分析해 볼 때, 가격차는 배럴당 2~3 달러가 타당한 수준이었다.

産油國들이 원유와 제품의 수출국이 됨에 따라 수출국들이 파는 상이한 原油와 제품간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論理的이고 合理的인 비율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리비아와 사우디 아라비아가 모두 그들의 原油 뿐만 아니라, 휘발유를 유럽에 수출한다고 할 때, 그들의 原油가격의 차이는 점차 정유공장의 經濟性과 수송비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 構造的 合理性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變化로 인해 價格差가 해결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유산업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는 80년대 후반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 輸入國이 직면한 주요선택

석유를 수입하는 開發途上國들은 여러가지 중요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그들이 주요제품 수입국이 될 대비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 자신의 精油 施設을 개조하여 제품수입에 대항하여야 할 것인가?

많은 석유수입국들은 아직도 消費地精製가 에너지 확보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精製部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需要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의 精製施設로는 필요한 제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다.

東아시아는 그 좋은 例로서 석유를 석탄, LNG, 原子力으로 대체하여 燃料油의 소비가 크게 감소

한 반면, 시설이 高度化되지 않은 정유공장에서는 아직도 燃料油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많은 開發途上國들의 전형적인 이러한 현상은 開發途上國들의 중요한 정책문제로 되고 있다. 정유시설을 개조하여 필요없는 燃料油를 경질제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水素化分解, 接觸分解 혹은 코킹 시설에 막대한 投資가 소요된다. 한편 많은 OPEC 회원국들이 대량의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 開發途上國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소요원유를 전당 OPEC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시아의 精油業界에서는 OPEC으로부터의 제품수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OPEC國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조만간 제품공급계약의 체결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 OPEC國家들은 현재 그들의 제품판매를 위해 市場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앞으로 90년과 비교하여 현재 도입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지도 모른다. 이는 또한 수입국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도입계약을 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해 줄 것이며, 동시에 차후 필요없는 제품의 도입계약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韓國의 정제시설로는 앞으로 나프타와 輕油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이며, 반면 燃料油, 灯油, 휘발유등은 필요량을 모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제품은 현재 高價의 分解施設을 건설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지도 모른다.

일부 정유공장들은 國際石油需給 狀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제품을 수출할 필요성이 있었다. 과거의 이러한 機能은 수출용 정제센터가 수행했다. 만약 OPEC의 제품이 적당한 市場을 이루게 되면, 이들 제품 역시 시장의 혼란요인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수입국 정부는 곧 그들의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만약 石油市場이 90년대에 와서 타이트하게 될 경우, 수입국들은 제품을 더 많이 購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은 필연적으로 購入할 수 없을 것이다. 위에 열거한 選擇은 전적으로 一般化될 수는 없으며, 各國이 세부적으로 검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포괄적인 문제와 선택은 대부분의 開途國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 OPEC이 직면한 중대결정

석유수출국들은 국내 하류부문에만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海外 하류부문을 買入 또는 合作投資로 海外의 精製 및 販賣部門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쿠웨이트만이 海外精製施設 및 流通網을 적극적으로 매입한 유일한 주요 OPEC 輸出國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83년에 처음으로 해외 하류부문 시설의 매입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시설의 買入은 대규모 販賣網을 가진 정유공장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販賣網은 정유공장의 생산능력을 크게 웃돌고 있어 국내정유공장의 제품판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重質原油를 처리할 수 있는 合作精製工場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西獨 Veba社와의 이 合作精製工場 建設計劃은 베네수엘라가 추진하고 있는 合作投資事業 가운데 첫번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만약 베네수엘라가 全世界적으로 이러한 合作事業이 성공하게 된다면, 重質原油의 매장량이 많은 베네수엘라는 석유시장에서 중요한 國家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우, 中·短期 展望은 밝지 않다. 石油의 공급과잉, 外債問題 및 重質原油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진기술의 막대한 비용 때문에 今世紀末 이전에는 사업성이 좋지 않다.

海外施設買入에 관심을 보인 기타 OPEC 國家로는 나이지리아를 들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이러한 施設買入을 장래 原油市場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나이지리아가 직면하고 있는 시장여건이나 어려운 財政問題 때문에, 이 방법은 당분간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施設買入 또는 合作投資에 대한 관심은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있는 유일한 경우이다. 쿠웨이트는 이미 유럽에서 施設買入을 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는 유럽과 美國을 事業對象地域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단계에서 쿠웨이트가 유럽에서 하류부문 施設의 매입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며, 동시에 美國에서 施設을 매입할 것으로도 생각되

지 않는다. 그러나 쿠웨이트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合作投資를 위해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 즉 東아시아 및 太平洋地域國家들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美國과 유럽에서는 石油需要가 최소한 80년대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반면, 極東에서는 石油需要의 증가전망이 훨씬 밝은 편이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아시아 및 太平洋地域國家의 경제시설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施設高度化를 할 수 있는 정유공장을 매입하거나 合作投資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이들 정유공장은 흔히 막대한 販賣網과 연결되어 있어 페르샤만 產油國들의 제품수출의 주요창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80년대의 주요 挑戰

간단히 요약해서 80년대의 石油市場은 석유제품의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중대한 도전을 야기할 것이다. 어려운 時機가 불가피하게 닥아올 것이며, 前途에는 위험이 산재하여 있다.

그러나 政府와 石油會社들이 조기에 조치를 취하게 되면 過渡期를 순조롭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政府와 石油會社들이 가까운 장래에 직면하게 될 問題와 選擇을 검토해 볼 때, 보호주의 정책 또는 정유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같은 단기적인 解決策은 사실상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石油市場의 주요 구성원은 수입국政府, OPEC 회원국 및 메이저들이다. 만약 이들이 채택한 政策이 결과적으로 보다 통합되고 책임감 있는 정유산업과 국제석유제품시장을 만들게 된다면, 세계석유시장은 좀더 활기가 있게 되며, 번덕스럽고 분열적인 行態는 줄어들 것이다.

70년대의 市場危機는 수십년에 걸친 저렴한 石油價格에 기인된 것이었으며, 80년대초의 石油危機는 石油價格의 폭등으로 야기되었다. 石油市場의 모든 주요구성원들이 관련된 석유제품의 국제무역이 번창할 때, 모든 당사자들은 기본적인 市場機能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이다.

만일 경제성장의 합리적인 石油價依存度, 石油의 有限성과 꾸준한 가격상승 및 석유수출국의 경제개발 罫원등의 장기적인 요인들이 計劃樹立에 감안된다면, 앞으로 수십년동안 石油市場은 격변이 훨씬 적어질 지도 모른다. \*